

커플 기본 심리적 욕구 중요성 척도의 개발*

한 소 영[†]

신 희 천

아주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자기결정 이론(Deci & Ryan, 2000)에 바탕을 두고, 커플 관계에서 주된 심리적 욕구를 측정하는 커플 기본 심리적 욕구 중요성 척도(Basic Psychological Needs Importance Scale for Couples; BPNIS-Couple)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 1에서는 엡세이를 통한 질적 자료의 수집과 관련 척도를 참고하여 자기결정 이론의 세 가지 기본 심리적 욕구인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을 반영하는 최초의 39개의 문항을 수집하였다. 전문가들의 평정을 통하여 24개의 예비 문항이 선별되었고, 탐색적 요인분석과 문항분석을 통하여 최종 21 문항을 추출하였다. 연구 2에서는 확증적 요인분석을 통해 연구 1에서 추출된 문항의 3 요인 구조를 확인하였으며, 대인관계 패턴 질문지의 하위 범주인 소망의 3요인과의 상관을 통해, 공존타당도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자율성은 '독립하고 싶음'과 .58, 유능성은 '성취하고 싶음'과 .64, 관계성은 '사랑받고 싶음'과 .70로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다. 개발된 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전체 척도가 .88, 하위요인인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이 각각 .79, .86, .86이었다.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전체 척도가 .80, 하위요인인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이 각각 .81, .61, .62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 및 추후 연구를 위한 제안을 논하였다.

주요어 : 기본 심리적 욕구,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 본 논문은 2004년도 2학기 아주대학교 정착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교신저자 : 한소영,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443-74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Tel : 031-219-1963, E-mail : honeycave@empas.com

커플 관계에서 한 사람의 욕구가 상대방에게서 충족되지 않을 때 갈등이 일어나곤 한다. 우리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려는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관계를 통해서 각 개인의 중요한 욕구를 만족시켜 삶의 안녕감에 기여하기 위함이다(Epstein & Baucom, 2002). 따라서 관계 내의 욕구 불만족은 안녕감에 큰 저해가 되며, 궁극적으로는 관계 유지의 필요성을 사라지게 할 것이다. 그렇다면 커플 관계나 친밀한 관계에서 원하는 중요한 욕구는 무엇이며, 그러한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부부 관계에 대한 연구자들과 이론가들은 관계 지향적 욕구, 개인 지향적 욕구 등과 같이 친밀한 관계에서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욕구와, 이러한 욕구들이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왔다. 이들 연구를 통해 중요한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지속적으로 지지되었다(Baumeister & Leary, 1995; Drigotas & Rusbult, 1992; Epstein & Baucom, 2002; Le & Agnew, 2001; McAdams, 1988, 1989; McAdams, Hoffman, Mansfield, & Day, 1996; Prager & Buhrmester, 1998). 예를 들어, Drigotas와 Rusbult (1992)는 연인 관계에서 만족될 수 있는 욕구와 욕구 만족에 대한 상호성을 연구하였다. 연구자들은 관계 욕구를 친밀감 욕구, 성적 욕구, 정서적 관여 욕구, 동반자 욕구, 지적 관여 욕구로 구분하고 상대방이 욕구들을 충족시켜주는 정도, 대안적 연애 상대가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정도에 각 욕구의 중요성을 가중치로 계산하여 연애 상대에 대한 욕구 만족 의존도를 측정하였다. 연구 결과, 욕구 만족 의존도가 높은 경우 커플 관계에서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더라도 그 관계를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욕구 만족 의존도가 관계의 지

속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이러한 결과는, 자신과 상대방이 관계 안에서 얻고자 하는 욕구와 그 욕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이를 상호 만족시키는 것이 커플 관계의 원만한 유지와 안녕감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인간의 욕구와 관련되어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자기결정 이론(Deci & Ryan, 2000, 2002)에서는 모든 인간에게 정교하고 통합된 자기감을 발전시키려는 자연적이고 선천적인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자기 성장 경향에 필수적인 기본 심리적 욕구가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Deci와 Ryan(2000)은 기본 심리적 욕구를 “지속적 심리적 성장, 통합감 및 안녕감에 핵심적인 내면의 심리적 영향소”라고 정의하였다. 이들은 모든 생물에게 수분과 같이 유기체의 신체구조를 생존시키고 재생산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물질이 있는 것처럼, 기본 심리적 욕구가 인간의 삶에 필수적 요소라고 주장하였다. 기본 심리적 욕구는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의 3가지 욕구로 이루어져 있다. 자율성(autonomy)은 자신의 의지, 자발성, 주체성을 가진다는 느낌과 관련된다. 유능성(competence)은 호기심, 도전, 효율성을 가진다는 느낌, 마지막으로 관계성(relatedness)은 타인과 연결되어 있고 돌봄 받는다는 느낌이다. 세 가지 욕구 각각은 최적의 발달을 위한 필수적 부분이며 심각한 부정적 결과가 있지 않는 한 방해되거나 무시될 수 없다고 본다. 또한 세 가지 욕구가 모두 만족되어야 심리적 건강이 유지되며, 하나나 둘 만의 만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고 가정한다(Deci & Ryan, 2000, 2002).

자기결정 이론에 따르면, 한 개인이 기본 심리적 욕구를 삶의 목표로써 명확하게 의식

하지 못 할 수도 있으나 이러한 영향소를 지속적으로 추구하게 되며 욕구 충족을 제공하는 상황이나 조건에 무의식적으로 끌리게 된다. 또한 욕구를 충족시키거나 방해하는 특정 사회 맥락적 요인들이 있으며 그 요인들에 따라 개인은 비교적 적극적이고 통합된 자기에서부터 수동적, 반응적, 소외된 자기 혹은 파편화된 자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발달적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보았다(Deci & Ryan, 2000, 2002). 여러 연구에서 기본 심리적 욕구의 충족이 심리적 안정감을 예측한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예를 들어, Sheldon, Ryan과 Reis (1996)는 지각된 자율성, 지각된 유능성 특질 측정 결과가 안녕감(긍정적 감정, 생기) 지표와는 정적 상관, 부정적 감정 및 증상과는 부적 상관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하루 동안의 자율성과 유능성의 변화가 안녕감의 변화를 예측하는 것을 발견하였고, 이후 연구에서 자율성과 유능성 뿐만 아니라 관계성의 변화도 안녕감의 변화를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is, Sheldon, Gable, Roscoe & Ryan, 2000). Ilardi, Leone, Kasser와 Ryan(1993)은 직장에서 피고용자가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의 욕구에 대한 만족을 느끼는 것이 자존감과 전반적 건강과 관련됨을 밝혔으며, 탁아소 아동에 대한 연구(Kasser & Ryan, 1999)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Deci와 Ryan(2000)은 발달과정에서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이 지속적으로 좌절될 경우 외적인 보상이나 외적 동기를 추구(Kasser, Ryan, Zax, & Sameroff, 1995)하게 되며, 이는 약물 사용(Williams, Cox, Hedberg, & Deci, 2000), 섭식장애(Strauss & Ryan, 1987), 정서적 고통(Baumeister & Scher, 1988) 등 심리적 부적응이나 낮은 안녕감과 관련된다고 보았다. 친밀한 관계 혹은 커플관계를 기본 심리적

욕구를 지지하거나 방해하는 하나의 사회적 맥락으로 본다면, 관계 내에서 기본 심리적 욕구가 만족, 혹은 만족되지 못할 때 그러한 관계 경험이 개인의 심리적 통합과 안녕감에 도움이 되거나 저해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Assor, Roth와 Deci(2004)의 연구에서, 부모의 조건적 훈육방식 즉, 자녀가 사랑을 얻기 위해 자율성을 포기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자녀가 목표행동을 수행하도록 강요당한다는 느낌, 덜 사랑받는다는 느낌, 더 일반화된 분노, 부모에 대한 적개심과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Deci, La Guardia, Moller, Scheiner와 Ryan (2006)는 친한 친구 관계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쌍 분석을 한 결과, 자율성을 지지하는 것이 관계 경험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자율성을 지지받도록 하여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하였다. 부모 자녀 관계나 친구 관계 뿐만 아니라, 연인 및 부부를 비롯한 성인 관계에서의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이 안녕감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들이 있다(Blais, Sabourin, Broucher & Vallerand, 1990; Le & Agnew, 2001). 예를 들어 La Guardia, Ryan, Couchman와 Deci(2000)는 성인을 대상으로 애착과 기본 심리적 욕구 및 안녕감의 관계를 연구하였는데, 기본적 욕구 만족이 높을수록 관계 대상에게 느끼는 애착 안정이 높으며, 애착 안정은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를 얻었다. 또한 Wei, Shaffer, Young과 Zakalik(2005)는 성인 애착이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수치심, 우울, 외로움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얻어,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이 성인 관계의 애착과 깊은 관계가 있음을 지지하였다. 이는 특정 관계에서 상대방의 기본 심리적 욕구에 대한 적절한 지지가 그 관계의

질을 결정하며 궁극적으로는 그 관계의 유지나 만족감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인 관계나 부부 관계에서 서로의 기본 심리적 욕구에 민감하고 시기적절하게 반응하여 만족감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의 욕구 강도의 개인차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자기결정 이론에서는 각 개인이 특정 욕구를 지지하고 방해받은 개인적 발달 경험이 있으며, 이런 경험에 따라 특정 사회 환경을 지향하고 이후 욕구 만족을 충족하려는 잠재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하지만 이들은 욕구 강도의 개인차를 인정하면서도, 세 가지 욕구가 모든 문화에서 건강한 발달과 안녕감에 핵심적이기 때문에 욕구 강도의 개인차보다는 기본 심리적 욕구의 보편성에 초점을 두었다(Deci & Ryan, 2000).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구 강도의 개인차를 고려하는 것은 특정한 커플의 관계의 질과 심리적 안녕감을 예측하거나 개선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실제로 Sheldon, Elliot, Kim과 Kasser(2001)의 연구에서 욕구만족감 뿐만 아니라 욕구 강도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심리적 안녕감 획득 및 유지에 중요함이 나타났다. 연구자들은 10개의 다양한 욕구 중 한국인과 미국인 모두에게서 자율성, 관계성, 유능성에 대한 중요성이 비교적 높았다는 연구결과를 얻어, 기본 심리적 욕구가 문화보편적인 특징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하지만 한국인에게서는 관계성, 자존감, 자율성, 쾌락추구, 유능성의 순으로, 미국인에게서는 자존감, 관계성, 자율성, 유능성, 쾌락추구의 순으로 심리적 욕구의 중요성이 다르게 나타났으며, 문화에 따라 각 욕구가 긍정적, 부정적 정서에 미치는 영향력 또한 다르게 나타났다. 연구자들은 Deci와 Ryan(2000)의 주장대로 문화보편적인 특정 욕구가 있는 것

이 사실이지만, 자신이 자라온 문화에서 특정 욕구를 고무하고 지지하는 정도에 따라 사람들이 욕구를 강조하는 정도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효과는 다를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Hahn과 Oishi(2006)는 미국인과 한국인을 대상으로 Sheldon 등(2001)의 연구를 반복 연구하였고 문화와 연령대에 따라 욕구의 현저성과 정서에 대한 영향이 다르다는 것을 지지하였다. 또한 Drigotas와 Rusbult(1992)는 각 개인마다 욕구의 강도가 다르며 커플 관계의 지속을 위해서는 욕구의 강도와 욕구 만족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연인 관계나 부부 관계에서 각 배우자가 개인 특징적으로 겪어온 과거 사나 특정 가치를 지향하는 문화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기본 심리적 욕구의 중요성(현저성) 또는 강도의 차이를 알고 서로 이해한다면 관계 내 안정 애착 형성에 도움이 되는 민감한 반응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기본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도록 촉진하여 안녕감과 만족감 획득, 더 나아가 관계의 유지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또한 특정 관계에서 욕구 만족정도는 그 관계의 긍정적, 부정적 경험의 결과를 보여준다고 볼 수도 있으므로, 욕구 만족도와 함께 욕구의 중요성에 대한 정보제공이 병행되어야 관계 개선을 위한 충분한 예방적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 사용되는 이성 관계나 부부 관계의 만족도 검사들은 관계 내 여러 영역들의 만족의 정도를 측정할 뿐(권정혜, 채규만, 1999; 이경성, 한덕웅, 2003; 이경성, 한덕웅, 2005; 이민식, 김종술, 1995; 이복동, 2000; 정민철, 2005; 정현숙, 2001; Roach, Franzier & Bowden, 1981; Snyder, 1979; Spanier, 1976), 욕구의 중요성을 고려하는 척도는 없다. 국내에서

비교적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한국판 결혼 만족도 검사(권정혜, 채규만, 1999)는 전반적 불만족, 정서적 의사소통 문제, 문제해결 의사소통, 공격행동, 공유시간 등 부부 관계에서 갈등이 나타날 수 있는 여러 분야의 행동적, 환경적, 적응상의 문제점과 만족도를 성공적으로 측정하는 도구로 검증되었으며, 결혼 적응검사(이경성, 한덕웅, 2003)는 한국 부부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요인인 주변가족과의 관계나 이혼의도를 측정하는 하위척도가 있다는 것이 뛰어난 점이다. 그러나 두 척도 모두 여러 가지 영역의 욕구 중 어떤 영역의 욕구가 개인에게 더 중요한지를 평가하거나 핵심적 심리적 욕구 차원을 섬세하게 측정하는 부분은 없다. 외국의 경우 La Guardia 등(2000)이 연인, 가까운 친구, 부모와의 관계 내에서 자기 결정 이론(Deci & Ryan, 2000, 2002)에서 주장하는 세 가지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을 측정하는 도구를 제작하였으나, 이 척도는 문항 수가 9개로 하위 구성개념들에 대한 정확한 측정이 어려울 수 있다. Gagne(2003)은 성인의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을 측정하는 일반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 척도(Basic Psychological Needs Scale-general)를 개발하였으나 커플 관계라는 특수한 맥락에서 나타나는 욕구 만족이나 욕구의 강도를 측정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이 두 가지 척도는 제작과정에서 문항 개발 및 타당화 과정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아 신뢰도 높은 도구라고 보기 어렵다. Drigotas와 Rusbult(1992)가 개발한 척도는 친밀감, 성, 정서적 개입, 동료애, 지적 관여의 5가지 영역에 걸쳐 커플의 욕구 만족 정도와 욕구의 중요성을 동시에 측정하고 있다. 하지만 친밀감, 정서적 개입, 동료애 등은 모두 정서적으로 가깝고자 하는 욕구와 관련되어 실제로는 비슷한 구성

개념을 측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욕구 중요성 측정에 있어 각 영역에 해당하는 백분율로 표시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정확한 개인차 측정은 어렵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자들은 커플 관계 내에서 욕구강도의 개인적 차이를 알아낼 수 있는 도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Deci와 Ryan(2000, 2002)의 자기결정 이론에 바탕을 두어 커플 기본 심리적 욕구 중요성 척도를 개발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삼았다.

연구 1: 커플 기본 심리적 욕구 중요성 척도(BPNIS-Couple)의 개발

방 법

예비문항개발

연구자들은 커플 기본 심리적 욕구 중요성 척도(BPNIS-Couple)의 예비문항을 다음의 과정을 거쳐 개발하였다. 첫째, La Guardia 등(2000)이 개발한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 척도 9문항을 한국어로 번역하고, 각 문항의 기술을 “나의 연인과 있을 때, ~가 중요하다.”로 바꾸어 욕구의 중요성을 표현하도록 하였다. 둘째, 심리학 관련 수업을 듣는 대학 학부 수강생 중 이성 관계 경험이 있는 학생 102명을 대상으로 Deci와 Ryan(2000)이 정의한 3가지 기본 심리적 욕구인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의 정의를 기술하고 각 정의와 관련되어 직접 경험했던 사건과 관련된 느낌을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자들은 이 내용을 검토하여 하위 구성개념을 잘 설명하고 문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선

별하여 총 25개의 척도 문항을 구성하였다. 셋째, 연구자들이 Deci와 Ryan(2000)의 문헌을 참고하여 5개의 문항을 고안하였다. 이 세 가지 과정을 거쳐 최종 문항수의 1.5배 이상(한국심리학회, 1998)인 총 39개의 기본 심리적 욕구 예비문항을 개발하였다.

그 다음 39개의 문항을 대상으로 연구자들(상담심리전문가 2인)과 본 연구에 직접적 관련이 없는 상담심리 전문가 1인, 임상심리 전문가 1인이 각 문항이 개념을 적절히 설명하는지, 번역문항의 경우 한국어 번역이 매끄러운지, 한국 문화에 적절한지 등을 평정하였다. 문항 각각에 대해 '매우 적절하다'에서 '매우 적절하지 않다'까지 1점에서 5점 사이로 평정하였으며, 평정된 문항 중 평균 3점 이상을 받은 문항을 각 요인 당 8개씩, 총 24문항 선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자들은 24개의 문항을 척도 개발 관련 전문가(박사과정 1명, 박사과정 수료 1명)에게 문항의 적절성과 척도지 구성의 적절성을 검토 받았다.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총 24개의 예비문항을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

대상

조사 대상은 경기도 소재 대학인 A대학 재학생으로, 배포한 300부의 설문지 중 회수된 251부에서 무응답 11명, 무성의 성의 응답 18명, 이성교제 경험이 없는 경우 15명, 이성교제 경험여부에 응답하지 않은 경우 29명이 제외되어 178명이 최종 분석에 들어갔다. 응답자의 성별 분포는 무응답 4명(2.25%), 여자 61명(34.27%), 남자 113명(63.48%)이었다. 이들의 연령은 최하 18세에서 최고 41세(SD = 2.84)

였으며, 평균 연령은 24.25세였다.

측정도구

연구 1에서는 연구자가 개발한 총 24문항의 커플 기본 심리적 욕구 중요성 척도 예비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모두 '나의 연인과 있을 때, ~이 중요하다.'로 기술되었으며, 응답자들은 각 문항의 진술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를 '전혀 아니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7점 리커트 척도 상에서 응답하였다.

절차

연구자는 커플 기본 심리적 욕구 중요성 척도 개발을 위한 예비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를 심리학 관련 교양 수업 2반, 법학 관련 전공 수업 2반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시간에 집단으로 실시하였으며, 설문작성에 대해 수업 점수에 대한 추가 점수를 부여하였다. 척도 반응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5분이었다.

분석방법

예비문항의 요인구조를 확인하고, 최종 커플 기본 심리적 욕구 중요성 척도 문항을 추출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과 문항분석 및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커플 기본 심리적 욕구 중요성 척도 예비문항의 요인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178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척도 점수를 기초로 요

Scree Plo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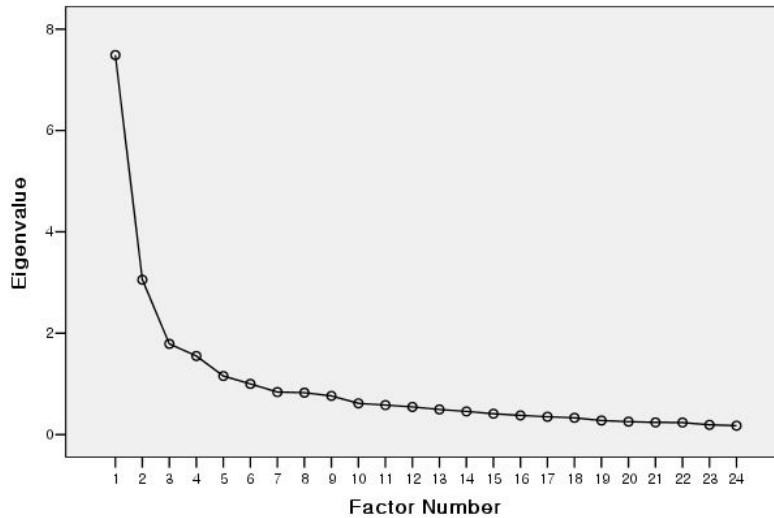


그림 1. 커플 기본 심리적 욕구 중요성 척도 24 개 예비문항의 요인들에 대한 Scree Plot

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론적 배경에 의해 본 척도가 3개의 구성개념으로 구성되어 있고, 구성개념들 간의 관련성을 가정하고 있으므로, 사교 회전(Direct Oblimin)방식으로 추출 요인을 3개로 제한하여 주축 요인 분석(Principal Axis Factoring)을 실시하였다.

우선 요인 분석이 가능한 자료인지 판단하기 위해 KMO와 Bartlett 구형성 검증 지표를 검토한 결과, KMO = .85, Bartlett's Test of Sphericity = 2086.67(276), $p < .01$ 로 요인 분석이 가능한 자료인 것으로 나타났다(양병화, 1998). 요인분석 결과 Kaiser 기준(Eigenvalue > 1.0)을 충족시키는 요인은 5개가 존재하였으나, Scree 검사로 요인수를 파악한 결과 3개의 주요 요인이 존재함을 시사하였고(그림 1 참조), 이론적으로 3요인이 타당하므로 요인 수를 3개로 지정하였다. 3개의 주요인은 전체 변량의 51.39%를 설명하였다(표 1 참조).

문항 추출을 위해 요인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표 1. 커플 기본 심리적 욕구 중요성 척도 24개 예비 문항의 5 요인의 고유치, 변량 백분율 및 누적 백분율

요인	고유치	변량 %	누적 %
1	7.49	31.20	31.20
2	3.05	12.73	43.93
3	1.79	7.46	51.39
4	1.55	6.46	57.85
5	1.16	4.81	62.66

로 문항 분석을 실시하였다. 적합하지 않은 문항 제거를 위한 기준은 첫째, 요인 부하량이 .40 이하인 문항, 둘째, 요인 부하량이 두 개 이상의 요인에서 .25 이상인 문항(Pett, Lackey, & Sullivan, 2003), 셋째, 전체 24문항의 문항-총점 상관(item-total correlation)에서 .30 미만인 문항, 넷째, 각 요인에 속하는 문항과 그 문항이 속한 요인의 총점간의 상관(item-factor correlation)이 .30 미만인 문항이었다(성태제,

표 2. 커플 기본 심리적 욕구 중요성 척도 21문항의 요인별 부하량과 Cronbach- α

구성개념	문항번호	요인			Cronbach- α
		1	2	3	
관계성	09	.88			.87**
	18	.73			
	04	.66			
	06	.63			
	24	.57			
	21	.56			
	11	.49		-.26	
자율성	08		.71		.78**
	07		.62		
	15		.58		
	13		.58		
	20		.57		
	03		.55		
	01		.44		
유능성	22			-.84	.85**
	10			-.73	
	02			-.71	
	05			-.69	
	14			-.54	
	19			-.50	
	23			-.37	
부하자승값		4.41	3.06	4.64	
설명변량비율		30.16	13.24	8.44	51.83

** $p < .01$ (2-tailed)

주. 요인 부하량 값이 .25 이상인 경우만 제시하였음.

1998). 마지막으로 요인 당 문항수를 맞추기 위해, 가장 최소한의 개수가 묶이는 요인을 기준으로 하여 다른 요인에서 문항수가 더

많은 경우 요인 부하량이 낮은 순으로 문항을 제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성태제, 1998).

표 3. 커플 기본 심리적 욕구 중요성 척도의 요인 및 최종 선별된 문항 내용

요인	문항 내용
관계성	1. 가깝고 친밀하다는 느낌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a 2. 깊은 교감과 유대감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b 3. 사랑받고 관심 받는 것이 중요하다.a 4. 거리감을 느끼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a 5. 나를 소중하고 중요한 사람으로 여긴다는 느낌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b 6. 나를 신경 쓰고 보살펴 준다는 느낌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b 7. 단절감을 느끼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b
자율성	1. 내 사생활이 침해당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b 2. 어떤 식으로 하도록 통제와 압력을 받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a 3.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c 4. 내 영역을 존중받는 것이 중요하다.b 5. 상대방의 의견이나 영향에 구속받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b 6. 자유롭게 원래 내 모습대로 있을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a 7. 나에게 결정권이 있으며 내 의견을 말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a
유능성	1. 내가 무능하다는 느낌을 받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c 2. 내가 매우 능력있고, 괜찮은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a 3. 나 스스로를 유능한 사람으로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a 4. 내가 부적절하거나 무능하다는 느낌을 받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a 5. 내가 가능성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b 6. 내가 역부족이라는 느낌을 받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c 7. 내 존재감이 크다는 느낌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b

주 1. 위 표에서 첨자 a가 있는 문항은 La Guardia 등(2000)의 연구 척도를 변안하여 고안한 문항, 첨자 b가 있는 문항은 학생들의 에세이에서 추출한 문항, 첨자 c가 있는 문항은 연구자들이 직접 고안한 문항임
 주 2. 모든 문항은 “나의 연인과 있을 때,”로 시작되나 위 표에서는 이를 생략하였음.

분석 결과 자율성 문항 7개, 유능성 문항 7개, 관계성 문항 7개로 총 21문항이 추출되었다. 추출된 21문항을 다시 Direct oblimin 방식으로 회전시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3개의 요인이 전체 변량의 51.83%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변량의 30.16%를 설명하는 요인 1은 관계성이었으며, 요인 2는 자율성으로 전체 변량의 13.24%, 요인 3은 유능성으로 전체 변량의 8.44%를 설명하였다. 내

적 신뢰도(Cronbach- α)는 전체 문항이 .88이었으며, 각 요인별로는 관계성이 .87, 자율성이 .78, 유능성이 .85였다. 추출된 21문항에 대한 요인 분석 결과와 요인별 내적 신뢰도를 표 2에, 커플 기본 심리적 욕구 중요성 척도의 3요인과 최종 선별된 문항들을 표 3에 제시하였다.

연구 2: 커플 기본 심리적 욕구 중요성 척도 (BPNIS-Couple)의 요인 구조 확인 및 타당화

연구 2에서는 연구 1의 결과에서 나타난 커플 기본 심리적 욕구 중요성 척도 21문항의 요인구조를 확인하고 척도의 신뢰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대인관계 패턴 척도의 하위개념인 '소망'에서 추출한 문항과 상관분석을 통해 커플 기본 심리적 욕구 중요성 척도 하위 구성개념의 공존 타당도를 일부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자들은 자율성은 '독립하고 싶음', 유능성은 '성취하고 싶음, 관계성은 '사랑받고 싶음'과의 상관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방 법

대상

요인 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1차 조사의 대상은 경기도 소재 A대학, H대학과 K대학 재학생으로, 배포한 240부의 설문지 중 회수된 223부에서 무성의 응답 4명, 이성교제 경험이 없는 경우 31명, 이성교제 경험여부에 응답하지 않은 경우 5명이 제외되어 183명이 최종 분석에 들어갔다. 응답자의 성별 분포는 여자 94명(51.40%) 남자 89명(48.60%)이었다. 이들의 연령은 최하 18세에서 최고 27세($SD = 2.37$)였으며, 평균 연령은 21.72세였다.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을 위한 2차 조사의 대상은 경기도 소재 K대학의 재학생으로, 배포한 120부의 설문지 중 회수된 98부에서 이성 교제 경험이 없는 경우 18명, 이성교제 경험여부에 응답하지 않은 경우 1명이 제

외되어 79명이 최종 분석에 들어갔다. 응답자의 성별 분포는 여자 42명(53.20%) 남자 37명(46.80%)이었다. 이들의 연령은 최하 18세에서 최고 27세($SD = 2.38$)였으며, 평균 연령은 21.72세였다.

측정도구

커플 기본 심리적 욕구 중요성 척도

연구 1에서 개발된 척도로써, 총 21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3개의 요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세 개의 요인은 각각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이며 요인 당 문항 수는 7개이다. 응답자들은 각 문항의 진술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를 '전혀 아니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7점 리커트 척도 상에서 응답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욕구의 정도가 강한 것으로 나타난다.

대인관계 패턴 척도

윤지희, 정남운(2004)이 CCRT(Core Conflictual Relationship Theme) 표준 범주 2판과 CRQ (Central Relationship Questionnaire)의 문항을 고려하여 제작한 질문지로 핵심적인 대인관계 패턴을 대인관계에서의 소망, 타인반응 그리고 자기반응의 3개의 범주로 평가한다. 소망 51문항, 타인 반응 53문항, 자기반응 58문항으로 구성된 총 162문항으로 이루어져있으며,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 친구 관계가 가장 안 좋았을 때의 상황에서 응답자가 느끼는 것을 7점 리커트 척도 상에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인관계 패턴 척도의 하위범주 중 기본 심리적 욕구 중요성 척도와 관련된다고 판단된 소망(Wish)에서 '독립하고 싶음', '성취하고 싶음', '사랑받고 싶음'의 3개의 요인을 골라, 요인 부하량이 가장 큰 문항

을 요인 당 2개씩 추출하여 총 6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응답자가 과거 또는 현재의 이성 관계에 초점 두어 응답하도록 하였다.

절차

연구자는 1차 조사에서는 커플 기본 심리적 욕구 중요성 척도를, 연구 2에서는 커플 기본 심리적 욕구 중요성 척도와 대인관계 패턴 척도의 추출 문항을 설문지로 구성하여 심리학 관련 교양 수업시간에 집단으로 실시하였다. 2차 설문조사는 1차 실시 4주 뒤 1차 조사에 참여했던 학생 중 1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척도 반응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5분이었다.

분석방법

연구 1에서 나타난 커플 기본 심리적 욕구 중요성 척도의 요인구조가 일관성 있게 반복되는지 알아보고 문항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델링을 이용하여 확증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내적 합치도 및 검사-재검사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공준 타당도 검증을 위해 커플 기본 심리적 욕구 중요성 척도의 하위 구성개념과 대인관계 패턴 척도의 하위개념인 '소망'에서 추출한 문항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커플 기본 심리적 욕구 중요성 척도의 요인 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183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척도 점수에 기초하여 확증적 요

인분석을 실시하였다. 3요인 모델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카이제곱값 외에 변인간의 상관을 0으로 가정하는 Null 모델과 연구모델을 비교하는 Normed fit index(NFI), 비교적 표본 크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모형의 간명성을 선호하는 지수로 알려진 Nonnormed fit index (NNFI),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RMSEA), 그리고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지는 않지만 표본크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모형 오류를 측정하는 Comparative fit index(CFI)를 적합도 지수로 사용하였다. NFI, NNFI, CFI는 대략 .90이상이면 모형의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간주되고(홍세희, 2000), RMSEA 값은 .05이하이면 좋은 모형, .08이하이면 적절한 모형, .10이하이면 보통 수준을 의미한다(Brown & Cudeck, 1993).

구조방정식을 이용한 확증적 요인 분석 결과, 3요인 모델의 적합도는 $\chi^2(186)=531.13$, NFI=0.96, NNFI=0.97, CFI=0.97이었으며, RMSEA=0.10로 모델 적합도에서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안적인 모델의 가능성을 확인해보고 3요인 모델의 우수성을 검증하기 위해, 전체 문항을 1요인으로 가정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1요인 모델의 적합도는 $\chi^2(189)=924.89$, NFI=0.93, NNFI=0.93, CFI=0.95, RMSEA=0.15로, 3요인 모델에 비하여 적합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모델이 적합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등지 관계에 있는 모델(nested relationship)간의 미지수 증가에 따라 발생하는 부합도 지수의 상승을 비교하는 χ^2 차이검증을 검토해 보았다. 그 결과 1요인 모델 - 3요인 모델은 $\chi^2_{dif(1요인-3요인)}(3) = 393.76(p<.0005)$ 로 χ^2 임계역이 .0005 수준에서 그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자유도가 적

은 3요인 모델이 채택되었다(홍세희, 2001). 3요인 모델의 요인구조 및 각각의 경로계수는 표 4에, 1요인 모델과 3요인 모델의 적합도는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커플 기본 심리적 욕구 중요성 척도의 하위 요인 간 상관을 분석한 결과, 자율성과 유능성이 .37($p < .01$), 관계성과 유능성이 .63($p < .01$)

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율성과 관계성간의 상관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표 6 참고).

커플 기본 심리적 욕구 중요성 척도의 내적 합치도와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표 6과 같다. 내적 합치도는 전체 문항이 .88, 자율성이 .79, 유능성이 .86, 관계성이 .86으로, 연구 1에서와

표 4. 커플 기본 심리적 욕구 중요성 척도의 요인 부하량

요인	측정변인 (문항번호)	비표준화계수	SE	Z	표준화계수 (요인부하량)
자율성	7	.57	.12	4.91	.41**
	6	.54	.11	5.16	.43**
	2	.85	.11	7.91	.69**
	1	1.02	.12	8.29	.73**
	3	.64	.11	5.82	.49**
	4	.82	.11	7.55	.65**
	5	1.22	.16	7.55	.71**
유능성	3	1.10	.17	6.42	.55**
	4	1.37	.17	8.03	.73**
	2	1.18	.15	7.65	.68**
	6	1.31	.17	7.82	.70**
	5	.99	.13	7.38	.65**
	1	1.52	.17	8.82	.83**
관계성	7	.66	.08	8.82	.63**
	3	1.02	.13	8.14	.73**
	4	.98	.12	8.14	.64**
	1	.93	.10	9.65	.76**
	7	1.05	.12	8.17	.68**
	2	1.00	.11	9.17	.72**
	7	1.14	.14	7.90	.62**
	5	.96	.10	9.18	.72**

** $p < .01$ (2-tailed)

표 5. 커플 기본 심리적 욕구 중요성 척도의 1요인 모델과 3요인 모델 적합도

모델	$\chi^2(p)$	df	NFI	NNFI	CFI	RMSEA
1요인모델	924.89(.00)	189	.93	.93	.95	.15
3요인모델	531.13(.00)	186	.96	.97	.97	.10

표 6. 커플 기본 심리적 욕구 중요성 척도 하위 요인간의 상관 및 신뢰도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문항수	Cronbach- α	검사-재검사신뢰도
자율성	1			7	.79	.81**
유능성	.37**	1		7	.86	.61**
관계성	.17	.63**	1	7	.86	.62**
전체 문항				21	.88	.80**

** $p < .01$ (2-tailed)

표 7. 커플 기본 심리적 욕구 중요성 척도(BPNIS-Couple) 하위 요인과 대인관계 패턴 척도 소망과의 상관

		대인관계 패턴 척도-소망		
		독립하고 싶음	성취하고 싶음	사랑받고 싶음
BPNIS 하위 요인	자율성	.58**	.30**	.22
	유능성	-.09	.64**	.47**
	관계성	-.09	.63**	.70**

** $p < .01$ (2-tailed)

같이 내적 합치도가 우수하게 나타났다.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전체 문항이 .80, 자율성이 .81, 유능성이 .61, 관계성이 .62였다.

커플 기본 심리적 욕구 중요성 척도의 타당화에 대한 예비 작업으로 대인관계 패턴 척도의 하위 범주인 소망의 3개 요인과의 상관 분석을 실시한 결과(표 7 참고), 연구자의 가설대로 자율성은 ‘독립하고 싶음’(.58, $p < .01$), 유능성은 ‘성취하고 싶음’(.64, $p < .01$), 관계성은 ‘사랑하고 싶음’(.70, $p < .01$)과 가장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

다. 그 밖에 자율성은 ‘성취하고 싶음’(.30, $p < .01$), 유능성은 ‘사랑받고 싶음’(.47, $p < .01$), 관계성은 ‘성취하고 싶음’(.63, $p < .01$)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자기결정 이론(Deci & Ryan, 2000, 2002)에 바탕을 두고 커플 관계에서 기본 심리적 욕구의 강도를 측정하는 커플 기본

심리적 욕구 중요성 척도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연구자는 Deci와 Ryan(2001, 2002)의 정의에 따라 자율성을 연인 관계에서 자신의 의지, 자발성, 주체성을 가진다는 느낌, 유능성을 연인 관계에서 자신감과 효율성을 가진다는 느낌, 관계성을 연인과 연결되어 있고 돌봄 받는다는 느낌으로 정의하였다.

연구 1에서는 커플 기본 심리적 욕구 중요성 척도의 문항 개발을 위해 질적 자료 수집과 연구자들의 문항 구성을 통해 39개의 문항을 선정한 뒤, 전문가들의 평정 과정을 통해 최종 24개의 예비문항을 선정하였다. 연애 경험이 있는 178명의 대학생들의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연구자들의 가정한 바와 같이 요인 구조가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의 3요인으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 분석과정을 통하여 요인 당 7 문항으로 구성된 총 21문항의 커플 기본 심리적 욕구 중요성 척도 최종 문항을 추출하였다.

연구 2에서는 커플 기본 심리적 욕구 중요성 척도 21문항의 요인구조를 확인하고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요인구조 확인을 위해 연애 경험이 있는 183명의 대학생의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확증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공존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재검사에 참여한 79명의 대학생의 커플 기본 심리적 욕구 중요성 척도 점수와 다른 척도 점수 간의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확증적 요인분석 결과 3요인 모델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연구 1의 결과를 지지하였으며, 기본 심리적 욕구가 3요인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난 La Guardia 등(2000)의 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내적 합치도는 전체 척도가 .88, 하위요인인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이 각각 .79, .86, .86이었으며, 검사-재검사 신뢰

도는 전체 척도가 .80, 하위요인인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이 각각 .81, .61, .62였다. 그 다음, 공존 타당도 검증을 위해 대인관계 패턴 척도서 추출한 3개 요인의 문항과의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자율성은 '독립하고 싶음'과 .58, 유능성은 '성취하고 싶음'과 .64, 관계성은 '사랑받고 싶음'과 .70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요약하면 본 연구에서 개발된 커플 기본 심리적 욕구 중요성 척도는 연인 관계 내에서 심리적 안녕감에 핵심적인 기본 심리적 욕구에 대한 중요성을 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도구로, 만족할 만한 신뢰도와 적절한 구성타당도 및 공존타당도의 가능성을 지닌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하는 연인 관계 및 부부 관계의 만족도나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을 측정하는 척도는 있었으나(Gagne, 2003; La Guardia et al., 2000), 기본 심리적 욕구의 중요성을 측정하는 기존 연구는 드물었고, 유일하게 기본 심리적 욕구의 중요성을 측정하고 있는 Sheldon 등(2001)의 척도는 정교한 개발과정을 거치지 않아 사용이 어려웠다. 무엇보다도 한국화 된 척도는 전무하였기 때문에 타당도 확인에 사용할 수 있는 적절한 척도가 없어 타당화 검증에는 한계가 있었다. 추후 연구에서는 척도 타당화에 적절한 척도 선별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공존 타당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연구자가 상관이 높을 것으로 가정한 요인들 간 상관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그 외의 요인들 간에도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 하위 구성개념에 따른 명확한 공존 타당도 확인이 어려웠

다. 이는 본 연구의 대상인 대학생들의 경우 성취에 대한 욕구가 다른 욕구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거나, 또는 기본 심리적 욕구의 하위 요인 간의 상관에 의한 결과일 수도 있다. 다른 한 가지 가능성은 척도 문항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척도의 일부 문항의 주어가 모호하여 피검자들에게 문항의 주어가 나인지, 나의 연인인지에 대해 혼란을 주었을 수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타당화를 위해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하고, 척도 지시문에서 문항의 주어를 좀 더 명확히 하여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본질적으로 측정내용이 중복되는 문항(‘1. 내가 무능하다는 느낌을 받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와 ‘4. 내가 부적절하거나 무능하다는 느낌을 받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을 수정하여 타당도를 재확인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커플 관계에서 서로 기본 심리적 욕구를 잘 이해하고 이를 만족시킬 때 관계 내 안녕감이 증진되고 관계 유지가 잘 된다는 연구자들의 가정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3가지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도 측정이 가능한 척도를 개발해야 할 것이며, 현재 연인 관계나 부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커플들을 대상으로 쌍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넷째, 본 연구는 경기도 권의 일부 대학에 재학하는 대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연구 결과를 일반화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다양한 지역, 연령, 학력, 직업 계층으로 구성된 표본, 또는 부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표본을 대상으로 교차타당도를 검증하고 척도의 요인구조를 반복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 개발한 척도는 외국의 이론에서 가정된 구성개념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자기결정 이론에서는 자율성, 유능

성, 관계성의 세 가지 구성개념이 인간에게 선천적이고 보편적인 욕구임을 주장하고 있다 (Deci & Ryan, 2000, 2002). 하지만 이전 연구들에서 문화와 연령에 따른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도와 중요성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어 (Sheldon et al., 2001; Hahn, & Oishi, 2006) 이론에서 가정하고 있지 않은 한국인 특유의 기본 심리적 욕구의 패턴이나 다른 심리적 욕구들 간과했을 수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기본 심리적 욕구가 한국 문화 특유 또는 성별, 연령 등에 따른 계층 특장적 패턴이 있는지, 혹은 연구자들이 간과한 다른 중요한 심리적 욕구가 있는지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현재의 연구결과로는 커플관계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욕구들 중에서 세 가지 기본 심리적 욕구가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하다고 확증 짓기는 어려우므로, 기본 심리적 욕구와 다른 영역의 욕구들이 심리적 안녕감, 커플 관계의 적응, 커플 관계의 만족감이나 관계의 지속 등에 미치는 영향력을 비교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커플 치료에 있어 중요한 임상적 의의를 갖는다. 커플 상담의 대상이 되는 역기능적인 커플의 경우 상대방의 욕구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부적응적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많은데 (Baucom, Epstein & LaTailade, 2002), 본 척도를 이용하여 상대방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심리적 욕구를 정확히 인식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면, 커플 관계에서 서로의 욕구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안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본 연구의 대상인 대학생의 성공적인 이성 관계를 위한 치료적 개입에 있어서도 같은 방식으로 적용되어, 이후 성인기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을 위한 토대가

되는 청소년기(송명자, 2001)에 성공적으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자기 결정 이론과 관련된 연구들에서 상대방에 대한 심리적 욕구의 지지가 상대방의 나에 대한 심리적 욕구의 지지를 이끌어내고, 이것이 심리적 욕구의 만족감, 안녕감 또는 친사회적 행동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Gagne, 2003; Deci et al., 2006). 본 연구에서 개발한 척도는 한 개인이 특정 심리적 욕구를 얼마나 중요시 여기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심리적 욕구의 중요성 정도는 상호간의 욕구 지지를 위한 중요한 선행 조건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커플 기본 심리적 욕구 척도는 이후 자기 결정 이론의 확장과 보완 연구를 위한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권정혜, 채규만 (1999). 한국판 결혼 만족도 검사의 표준화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8(1), 123-139.
- 성태계 (1998). *문항제작 및 분석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학지사
- 송명자 (2001). *발달심리학*. 서울: 학지사
- 양병화 (1998). *다변량 자료분석의 이해와 활용*. 서울: 학지사
- 윤지희, 정남운 (2004). 대인관계 패턴 질문지 개발을 위한 예비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4), 613-635
- 이경성, 한덕웅 (2003). 결혼적응검사의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8(3), 679-705.
- 이경성, 한덕웅 (2005). 친밀한 이성관계에서 이상과 현재의 차이가 관계 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9(1), 163-184.
- 이민식, 김중술 (1995). 부부 적응 척도의 표준화 예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95 연차대회 학술논문집*, 291-299.
- 이복동 (2000). 성인애착과 이성관계 만족.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민철 (2005). 성역할유형과 성인애착유형에 따른 K-MSI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현숙 (2001). 한국형 결혼만족도 척도 개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9(12).
- 한국심리학회 (1998). *심리검사 제작 및 사용 지침서*.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홍세희 (2000). 구조 방정식 모형에 있어서 적합도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 161-177.
- 홍세희 (2001). *구조 방정식 모형의 기초와 응용*. 미발간 워크샵 교재.
- Assor, A., Roth, G., & Deci, E. L. (2004). The emotional costs of parents' conditional regard: A Self-Determination Theory 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72, 47-89.
- Baucom, D. H., Epstein, N., & LaTaillade, J. J. (2002). Cognitive-behavioral couple therapy. In A. S. Gurman, & N. S. Jacobson (Eds), *Clinical handbook of couple therapy*.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Baumeister, R. F., & Leary, M. R. (1995). The need to belong: Desire for interpersonal attachments as a fundamental human motivation. *Psychological Bulletin*, 117, 497-529.
- Baumeister, R. F., & Scher, S. J. (1988). Self-

- defeating behavior patterns among normal individuals: Review and analysis of common self-destructive tendencies. *Psychological Bulletin*, 104, 3-22.
- Blais, M. R., Sabourin, S., Boucher, C., & Vallerand, R. J. (1990). Toward a motivational model of couple happi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5), 1021-1031.
- Brown, M. W., & Cudeck, R.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Bollen, K. A., & Long, J. S. (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Newbury Park: Sage Publications.
- Deci, E. L., & Ryan, R. M. (2000). The "what" and "why" of goal pursuits: Human needs and the self-determination of behavior. *Psychological Inquiry*, 11(4), 227-268.
- Deci, E. L., & Ryan, R. M. (2002). Overview of self-determination theory: An organismic dialectical perspective. In E. L. Deci, & R. M. Ryan(Eds.), *Handbook of self-determination research*. New York: The University of Rochester Press.
- Deci, E. L., La Guardia, J. G., Moller, A. C., Scheiner, M. J., & Ryan, R. M. (2006). On the benefits of giving as well as receiving autonomy support: Mutuality in close friendship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2(3), 313-327.
- Drigotas, S. M. & Rusbult, C. E. (1992). Should I stay and should I go?: A dependence model of breaku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2, 62-87.
- Epstein, N., & Baucom, D. B. (2002). *Enhanced cognitive-behavioral therapy for couples: A Contextual approach*.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Gagne, M. (2003). The role of autonomy support and autonomy orientation in prosocial behavior engagement. *Motivation and Emotion*, 27, 199-223.
- Hahn, J., & Oishi, S. (2006). Psychological needs and emotional well-being in older and younger Koreans and American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0, 689-698
- Ilardi, B. C., Leone, D., Kasser, T., & Ryan, R. M. (1993). Employee and supervisor ratings of motivation: Main effects and discrepancies associated with job satisfaction and adjustment in a factory setting.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23, 1789-1805.
- Kasser, T., & Ryan, R. M. (1999). The relation of psychological needs for autonomy and relatedness to vitality, well-being, and mortality in a nursing home.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29, 935-954.
- Kasser, T., Ryan, R. M., Zax, M., & Sameroff, A. J. (1995). The relation of material and social environments to late adolescents' materialistic and prosocial values. *Development Psychology*, 31, 907-914.
- La Guardia, J. G., Ryan, R. M., Couchman, C. E., & Deci, E. L. (2000). Within-person variation in security of attachment: A self-determination theory perspective on attachment, need fulfillment, and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9(3), 367-384.
- Le, B. & Agnew, C. R. (2001). Need fulfillment

- and emotional experience in interdependent romantic relationship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18(3), 423-440
- McAdams, D. P. (1988). Personal needs and personal relationships. In S. Duck, & D. Hay(Eds.), *Handbook of personal relationships: Theory, research and interventions*. Chichester, England: John Wiley.
- McAdams, D. P. (1989). *Intimacy: The need to be close*. New York: Doubleday.
- McAdams, D. P., Hoffman, B. J., Mansfield, E. D., & Day, R. (1996). Themes of agency and communication in significant autobiographical scenes. *Journal of Personality*, 64, 339-377.
- Pett, M. A., Lackey, R. N., & Sullivan, J. J. (2003). *Making sense of factor analysis: The use of factor analysis for instrument development in health care research*. Newbury Park: Sage Publications.
- Prager, K. J., & Buhrmester, D. (1998). Intimacy and need fulfillment in couple relationship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15, 435-469.
- Reis, H. T., Sheldon, K. M., Gable, S. K., Roscoe, J., & Ryan, R. M. (2000). Daily well-being: The role of autonomy, competence, and relatednes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6, 419-435.
- Roach, A. J., Frazier, L. P., & Bowden, S. R. (1981). The marital satisfaction scale: Development of a measure for intervention research.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3, 537-546.
- Sheldon, K. M., Elliot, A. J. Kim, Y & Kasser, T. (2001). What is satisfying about satisfying events?: Testing 10 candidate psychological need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0(2), 325-339
- Sheldon, K. M., Ryan, R. M., & Reis, H. T. (1996). What makes for a good day? Competence an autonomy in the day and in the pers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2, 1270-1279.
- Snyder, D. K. (1979). Multidimensional assessment of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1, 813-823.
- Spanier, G. B. (1976). Measuring dyadic adjustment: New scales for assessing the quality of marriage and similar dyad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8, 15-28.
- Strauss, J., & Ryan, R. M. (1987). Autonomy disturbances in subtypes of anorexia nervosa. *Journal Abnormal Psychology*, 96, 254-258.
- Wei, M., Shaffer, P. A., Young, S. K., & Zakailik, R. A. (2005). Adult attachment, shame, depression, and loneliness: The mediation role of basic psychological needs satisfac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2(4), 591-601.
- William, G. C., Cox, E. M., Hedberg, V. A., & Deci, E. L. (2000). Extrinsic life goals and health risk behaviors in adolescent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30, 1756-1771.

원 고 접수 일 : 2006. 10. 16

수정원고접수일 : 2006. 11. 7

게재결정일 : 2006. 11. 11

Development of the Basic Psychological Needs Importance Scale for Couples

Soyoung Han

Hee-Cheon Shin

Ajou University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develop the Basic Psychological Needs Importance Scale for Couples(BPNIS-Couple) based on Self-Determination Theory(Deci & Ryan, 2000). In study 1, 39 items were created from students' essays and the items of the Basic Psychological Needs Satisfaction Scale developed by La Guardia et al.(2000). We selected the 24 preliminary items from the original item pool on the basis of ratings of the researcher group. The result from the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nd item analysis supported 3 factor-structure of the scale: a) autonomy, b) competence, and c) relatedness. Finally, a total of 21 items with 7 items per each factor were selected. In study 2, the 3-factor structure of the scale identified in study 1 was supported by the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using a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e coefficient alphas were .89 for the total BPNIS, .79 for the autonomy, .86 for the competence, and .86 for the relatedness. The test-retest reliability coefficients were .80 for the total BPNIS, .81 for the autonomy, .61 for the competence, and .62 for the relatedness. For the concurrent validity of the scale, we examined the correlation between 3 factors of the scale and 3 factors of the Wish subscale of the Interpersonal Relationship Pattern Questionnaire. The result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correlations between autonomy and "to be independent"(.58), competence and "self-confident"(.64), and relatedness and "to be loved"(.70).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study and the suggestions for the future studies were discussed.

Key words : *Basic Psychological Needs, Autonomy, Competence, Relatedness*